

FOCUS

2012 기후변화방재산업전 개최

- 삼성동 코엑스에서 5월29일~31일 사흘간 개최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도시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우리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었다. 해마다 유사한 도시홍수가 빈번해 지고 있으며, 우면산사태와 같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은 큰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상기후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방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자연재해예방책을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방재기준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에, 재난관리 주무처인 소방방재청은 외곽지역의 홍수피해 예방에 집중되어있던 수해대책을 도시방재 중심으로 변화시키기로 하고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진화 된 방재설비의 개발 및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방재협회가 대표 주관하여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코엑스에서 '재해관리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란 주제로 '2012 기후변화 방재산업전'을 개최한다.

이번 산업전은 2007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3개 기업이 참여하여, 홍수·지진·산사태·폭설 등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를 예방·복구하는 기술·제품 등을 선보였다.

올해는 약 113개사(7개국) 237규모(기업전시관 147부스, 이벤트관 90부스)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연재해를 예방할 방재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이번에는 방재신기술관이 따로 마련되어, 기 지정 및 평가 신청 중인 방재신기술을 한 곳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전시회 기간 중에 동시행사로 방재기술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246개 지방자치단체 방재담당공무원 업무별 교육과 관련학회 및 협회에서 주관하는 약 학술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기업에게는 방재에 관한 최신 트렌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 및 체험관을 마련한다. 관람객들은 이벤트체험관에서 자연재난을 직접 체험해 보고, 소방방재청 전문가들로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2012기후변화 방재산업전 사무국(02-6000-1177, 070-7880-4637) (www.cadre.kr)

2011 기후변화방재산업전 주요 행사모습



포커스